

민천주보

제2868호

2025년 2월 23일 | 연중 제7주일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우리 본당 가족사진 <주안8동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1979년 설립

입당송 | 시편 13(12),6 참조

주님, 저는 당신 자애에 의지하며, 제 마음 당신 구원으로 기뻐 뛰리이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제1독서 | 1사무 26,2.7-9.12-13.22-23

화답송 | 시편 103(102),1-2.3-4.8과 10.12-13(◎ 8ㄱ)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

○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네. ◎

제2독서 | 1코린 15,45-49

복음 환호송 | 요한 13,3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복음 | 루카 6,27-38

영성체송 | 시편 9,2-3

주님의 기적들을 날날이 전하오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원수사랑’이 안되는 이유는?

‘원수 사랑’은 “지킬 수 없는, 현실성 없는 말씀”일까? 오늘 복음인 루카 6장 27-29절은 나를 미워하고, 헐뜯고 잘못되길 바라며(저주), 괴롭히고 모질게 대하고(학대), 더 나아가 폭력(뺨)과 갈취(겔옷)까지 일삼는 이들을 ‘원수’라고 한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일까? ‘선의 실현’, 즉 ‘하느님의 선’을 향해서 나아가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주는 것이다. 그러려면 목적만이 아니라 그 방법 또한 선해야 한다.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모두 ‘선한 방법’들이다. 증오심, 저주, 앙갚음 같은 ‘악’으로는 ‘선’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잘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꾸짖고 타이르는 것도 ‘사랑’인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잘되게 이끌고자 할 때, 이를 이해하지 못한 자녀가 부모를 미워하거나 원수 같은 모습으로 돌변해도, 변함없이 부모가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원수 사랑’의 비근한 예를 보게 된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원수 사랑’을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확대하라고 하신다. 즉 ‘울타리를 만들지 말고, 편 가르기도 하지 말며 이웃과 원수를 구분하지 말라’고 하신다. 사실 ‘원수’는 원래 없을지도 모른다. ‘내가 내 마음대로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다르고, 내 뜻과 내 마음만으로 되지는 않는 법. 신앙인으로서 나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미워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더 실천이 어려워진다. 오늘 1독서는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울을 살려주는 대인 같은 다윗의 모습을 전해준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해 훗날 다윗은 ‘빛 세

바 사건’(2사무 11-12장)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된 용서를 주님께 청할 수 있었고, 구약에 이름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이에 비해 우리는 별것 아닌 것에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짜증과 화를 분출하지 않는가? 매번 주님께 한 번만 봐달라며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내 뜻대로 해보려고 억지를 부리지 않는가?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의 잘못도 뉘우치지 못하고, 참된 용서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삭히지 못하는 속 좁고 얇은 마음을 가진 우리도,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시는 자비로운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 마음도 넓고 깊어져서 자비로운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기도해 본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저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경환 비오 신부
옥련동 본당 주임

희망의 촛불 밝히기 3_기도 편

미래사목연구소 편집부

믿음의 기도가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라면, 희망의 기도는 희망의 제일 중요한 에너지인 꿈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의 기도는 언제 바칠까요? 바로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바칩니다. 희망의 출발점은 바로 절망인 것입니다. 그럼, 희망 기도를 어떻게 바치면 좋을지 살펴볼까요?

1단계, 입을 크게 벌려라

희망 기도 1단계는 입을 크게 벌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입을 작게 벌리는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네 입을 한껏 벌려라, 내가 채워 주리라.” (시편 81,11)

여기에는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기왕이면 많이 청하고 크게 청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1코린 12,31)라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스케일 크게, 주님께 청해 봅시다.

2단계, 바라보라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실 때, 먼저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을, 또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땅을 모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창세 13,14-15 참조)

주님은 이처럼 시청각을 활용하셨습니다. 무엇을 표현할 때 온몸을 동원해서 직접 체험하게 되면 90%가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실 때 일부러 시

각 효과를 이용하셨습니다. 자꾸 바라봄으로써 이 꿈이 아브라함 안에 ‘희망 DNA’로 각인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00년 후에 이 꿈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바라봄’은 우리 일상생활, 특히 가정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백 마디 말이어도 한 번 보여 준 것만 못합니다. 즉 보여주는 대로 아웃풋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한 예로, 자녀들에게 “기도 좀 해라.”하고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먼저 신이 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자녀들을 기도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 희망의 법칙입니다. 이때 우리가 희망을 품고 바라보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연합하여 돕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연합합니다.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도 혼자 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3단계, 응답이 올 때까지 매달리라

희망 기도 3단계는 응답이 올 때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성녀 마더 테레사 수녀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지 묻자, 수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더 잘하고 싶으면 더 많이 기도하세요.”

질로 안 되면 양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잘하려 하지 말고, 많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간절함이 배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 야고보서의 말씀을 되새기며 더 간절히 청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가지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 4,2)

갈갈수녀님



김요한

파테르 노스테르 (우리 아버지)

김민서 베난시오 | 간석4동 본당

평화를 빕니다.

저는 교구 청소년사목국이 주관하는 제8기 청년 도보 성지 순례에 참여하였습니다. 행사 당일 핸드폰을 제출하며, ‘내가 사는 삶에서 벗어나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순례길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첫날 미사 봉헌 후 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원들과 걸으며 묵주기도를 봉헌했지만, 속도에 따라가지 못해 차츰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조원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마음속으로 이런 속도라면 차라리 포기하고, 조원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행히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인 ‘꽃동네 교황 프란치스코 센터’에 무거운 몸으로 도착하였고, 숙소에서 룸메이트와 휴식을 취한 뒤 저녁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강당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폐제(Taizé)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성화와 ‘세족례’ 성화가 있었는데, 처음엔 그저 힘들고 지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성가가 강당에 울려 퍼졌고 자유 기도 봉헌 시간이 되었고, 제 차례에 십자가 경배를 하고 ‘엠마오로 가는 길’ 성’를 보자 자연스레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전날 같이 손잡고 길을 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옆의 ‘세족례’ 성화로 시선을 옮겨 무릎을 꿇고 멍하니 보고 있던 중 갑자기 눈물이 확 나며, ‘아빠... 나 혼자 일어서기 너무 힘들다. 도와줘, 제발. 아빠 생전에 핑계를 대며 단 한 번도 발을 못 씻겨 드려 죄송해요.’라고 부르짖던 중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라는 성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님의 품에 계신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생각에 저는

큰 위로를 받고 조원들과 나눔 후 숙소로 돌아와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날 밤 꿈에 아버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의 애칭을 불러주며, “작은 돼지야, 포기하지 마! 너가 지금 생각하는 포기는 단지 핑계 중 제일 미련 없는 핑계일 뿐이야. 그러니 힘들면 포기하지만, 아빠가 늘 너의 뒤에서 밀어줄 테니 끝까지 완주해라. 너는 누구보다 멋진 우리 아들이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하고 다시 힘을 얻은 저는 오메가 조에 합류하여 둘째 날에도 끝까지 걸어 목적지에 도착하였고, 첫날처럼 지쳐있을 때 때마침 아빠의 말씀과도 같은 노래 가사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또 한 번 다짐해도 / 텅 빈 가슴에 남은 건 오직 절망과 두려움뿐 /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난 나의 사랑 / 차가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 (중략)당신께 매달려요 구해달라고 / 말없이 손 내밀어주시는 당신 / 괜찮다 걱정 마라 구해주시니 / 여전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죠(하략)”(성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에서)

또다시 저는 지친 마음을 이겨낼 힘을 얻었고, 셋째 날에도 응원하는 아빠의 힘과 목소리를 느끼며 목적지까지 완주하였습니다. 다른 이가 아닌 아빠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고, 항상 든든하게 내 옆에 하느님과 함께 계시는 아빠가 계신다는 힘을 느끼며 2박 3일간의 제8기 인천 청년 도보 성지 순례의 행복한 여정과 여행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현실에 지쳐있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미약하나마 힘이 되는 성경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창세 31,3)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25주년 기념 미사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1일(토) 교구청 성모당에서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의 집전으로 인천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25주년 기념 미사가 있었다. 기념 미사에는 민족화해위원회에 소속된 각본당 민화위분과장·차장, 인천새터민지원센터 수녀들과 새터민들, 민화위 기도모임과 화해평화센터 수녀와 관계자 등 60여 명이 함께 했다. 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2000년 3월 1일 설립되어 남북교류 사업(대북지원)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는 새터민지원사업을, 2015년부터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운동을 하였다. 2019년부터는 교동 화해평화센터를 중심으로 평화교육과 평화순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카리타스 신년하례식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14일(금)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대표이사 정윤희 베드로 신부)는 교구 보니파시오 대강당에서 교구 내 가톨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200여 명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여 서로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카리타스 신년하례식을 진행하였다. 미사 강론에서 정윤희 신부는 “가자지구의 전쟁을 통한 오늘날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된 역사에 빚대어 표현하며 구약의 법은 잊고, 신약의 법으로 원수도 사랑하며 살아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미사 중에 카리타스상(종사자/후원자), 공로상 시상과 임명장 수여, 카리타스 장학회 장학증서(11명)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제31회 바다의 별 축제 및 WYD 교구조직위원회 발대식

교구 홍보기자 변훈 바오로, 장창규 루도비코



9일(주일) 제31회 바다의 별 축제가 '길'이라는 주제로 교구청 일대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10시부터 교구청 마당에서 진행된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 가운데에 특별히 젊은이의 희년과 함께 수도자의 희년을 기념하여 성가소비녀회, 순교자 전교 수녀회, 한국 순교복자수녀회 등 이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고, 정신철 주교는 “주교님이 쓴다!”라는 타이틀로 피자 100판을 후원하여 참가자들에게 기쁨을 나누어주었다. 13시 보니파시오 대강당에서는 5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노틀담 수녀회에서 준비한 신앙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길, 소명’을 생각하며 길을 표현하는 바닥 그림을 만들었다.

14시 30분에는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와 20여 명의 사제단의 공동 집전으로 미사를 봉헌하였다. 정 주교는 “희망을 가지고 꿈을 좇다 보면 문득 두려움이 들곤 한다. 두려움이 들 때 하느님께 기도해야 한다”며, “기도를 통해 두려움을 이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꿈을 꾸는, 희망을 이루어 나가는 청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또한 “하느님은 여러분의 꿈을 꼭 이루도록 현명한 생각을 주실 것”이라고 격려했다. 미사 중에는 WYD 교구조직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WYD 교구조직위원으로 유영욱 프란치스코 신부, 김용수 마태오 신부가 위촉되었으며, 발대식에서는 새롭게 제작된 교구조직위원회 현판 축복식이 이뤄졌다. 현판은 본대회와의 일치를 이루면서도 인천교구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존 WYD 로고를 기반으로 상단에는 성모님을 상징하는 바다의 별을, 하단에는 서해를 상징하는 파도를 넣었다.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보나 장학금 전달식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5일(수) 교구청 3층 접견실에서 보나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는 북한이탈주민 대학생과 중학생에게 보나 장학금 증서를 전달하였다. ‘보나 장학회’는 2011년故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가 ‘북한이탈주민들이 배움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 ‘보나 장학회’는 매년 2천만 원의 장학금을 20여 명의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전달하고 있다.

'믿음과 은총' 코너에 실릴 사진과 일상 신앙 수기를 모집합니다.

익명으로도 게재가 가능하며, 띄어쓰기 포함 1,600자 분량의 원고(A4)를 hongbo032@daum.net으로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선정 후 주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구 청

554차 카나혼인강좌

일시: 4/6(주일) 13:30~18:30
장소: 보니파시오 대강당
문의: 032-762-8888 가정생명사목부

지구를 위한 미사와 환경특강

일시: 3/2(주일) 9:00, 11:00 미사
장소: 상동 성당
문의: 032-765-7255 생태환경사목부

교육 | 미사

인천ME 468차 주말

일시: 3/21(금)~23(주일)
장소: 강화 갑곶성지
문의: 032-761-1015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파티마 세계 사도직)

일시: 9:30~12:30 보니파시오 대강당 (회비-3만원)
[제1주] 3/10(월) 소개강의 및 세속정신 없애기1: 신동규 다미안 마리아
[제2주] 3/17(월) 세속정신 없애기2: 양창우 요셉
[제3주] 3/24(월) 자기자신 알기: 정병덕 라파엘
[제4주] 3/31(월) 성모 마리아를 알고 사랑하기: 이병근 대건안드레아
[제5주] 4/7(월) 예수님 알고 사랑하기: 김연준 프란치스코
[제6주] 4/14(월) 봉헌식 및 봉헌의 생활화: 김석훈 안드레아
문의: 010-8702-5185 회장 조경희

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2025년 기도학교

일시: 3/22 10:00~12:30(시간 연장 가능)
장소: 교구청(도화동) 보니파시오 대강당
대상: 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 회원
회비: 무료(미사 예물 및 봉헌금 준비)
주관: 인천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후원: 인천교구 김포 성체순례성지

향심기도 소개강의

일시: 3/5부터 매주(수) 14:00~15:30 [4주간]
장소: 영성센터A 313호(구.계성여고)
대상: 누구나 / 회비: 1만원 [4회]
지도: 이승구 신부
문의: 010-4565-8898

6차 청소년 성령안에 새생활 피정

일시: 3/21 18:30(금)~23(주일) 17:30
장소: 꾸르실로 태암 레오관(구.교구청사)
대상: 중, 고등부
참가비: 14만원
문의: 010-8255-8845, 010-5758-0700

박찬용 신부의 베드로서간 강의

개강: 3/6(목) 10:00~12:00
장소: 답동 사회사목센터 4층 대강의실
문의: 010-3301-0990 (비용-4만원)

한국외방선교수녀회 Zoom 성경통독

일시: 매주(화) 20:00~21:00 [주 1회]
대상: 20~40세 미혼 여성
문의: 010-9353-1773

2025년 대희년 성모님께 드리는 33일 봉헌

·성모님께 33일 봉헌 1차 감사파정: 2/24(월)
강사: 이상희 신부, 한영임 회장
·성모님께 33일 2차 봉헌: 2/26~3/30
10:00~12:00 묵주기도 20단,
13:00~17:00 봉헌 기도(강의, 기도, 파견미사)
장소: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61-1 지혜의 샘
문의: 010-3248-9705

가정선교회 3월 피정

·토요피정과 성모신심 첫토 미사: 3/1(토) 김현우 신부
·성가정 영성 피정: 3/5(수) 박현민 신부, 이현주 회장
·치유, 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3/15(토) 김성대 신부
찬양: 고영민 부회장, 손현희 팀장
일시: 12:30~16:50, 가톨릭회관 3층 강당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토아울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00~16:00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강사: 2/25 이상기 가브리엘
3/4 김성대 신부
문의: 010-5514-4077 회장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3/8(토)~9(주일), 4/12(토)~13(주일)
[3박 4일] 2/17(월)~21(금)
[4박 5일] 2/26(수)~3/1(토)
[8박 9일] 3/13(목)~21(금), 4/23(수)~5/1(목)
[40일] 4/21(월)~5/30(금)
장소: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돌평화순례
성지순례(추차도 포함): 3/9~12, 4/2~4, 12~15, 4/27~30, 5/4~7, 26~29, 6/1~4
생태순례: 3/17~19, 22~24, 28~30, 4/7~9, 22~24, 5/10~12, 15~17, 5/20~22, 6/20~22
문의: 064-756-6009, 02-773-1463(제주자연피정)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2025년 피정접수 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일시: 3/8~10, 13~16(추차도 포함), 18~20, 3/23~26(추), 29~31, 4/1~3, 5~8(추), 4/10~12, 14~16, 21~23, 25~27, 5/4~6
문의: 064-796-4182, 02-773-1455(제주자연피정)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말씀과 함께 하는 사순기도회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루카 23,42)
강의, 성시간, 떼제, 부르짖는 기도, 안수
일시: 3/7(금)~4/15(화) 19:30~22:30 20:30 미사
온라인 미사지향: 성령쇄신 [신협 131-019-112859]
문의: 032-761-6301

교구 체나콜로 미사

일시: 2/24(월) 작전동 성당 12:30 찬양
13:00 성체 안에 체나콜로 기도
14:00 미사(새 사제들의 첫 안수 있음)
준비물: 미사도구, 묵주, 메세지 책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일시: 2/25(화) 11:00 미래사목연구소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문의: 031-986-7141

가톨릭문화원 상설 음악피정미사, 무료 콘서트

일시: 매주(주일, 목) 14:00
장소: 가톨릭문화원 아트센터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970-18)
버스운행: 13:30 장기역 3번 출구
버스정류장 옆 공영주차장
문의: 1577-3217

모 집 | 일반

이승훈 베드로 성지 '기도의 벽', '추모의 벽' 신청

성지 성전에 지하자 성명 각인 1인당-1백만원
10년 동안 매달 1회 미사봉헌
문의: 032-765-6916 인천교구 성지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드림로 472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봉안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백만원, 5백만원
문의: 032-765-7251
<http://haneul.caincheon.or.kr>

예수회 이웃살이 봉사자 모집

한국어교실: 매주(주일) 한국어교육 경험자 환영
레인보우식당: 넷째 주(주일) 주방 봉사
장소: 이주노동자센터 김포 통진 소재
문의: 031-987-6241, 010-2713-9719

글라젠티교수도회 심리상담

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가족관계,
직장 및 학교 부적응, 이주민 자녀 진로상담
대상: 개인, 부부, 가족, 청소년 (상담료-1회 1만원)
장소: 부천시 심곡본동 608-7
문의: 010-7794-6031

어린이, 청소년 환경탐사단 모집

자연 속에서 함께 놀며, 배우며,
환경을 지키는 어린이, 청소년 환경탐사단
활동 기간: 3~12월(매월 셋째 주 주일)
참가비: 20만원
문의: 032-777-9494 가톨릭환경연대

시스티나음악원 수강 모집(신촌)

성가 발성 교실, 그레고리오성가(지휘, 반주, 기초)
문의: 010-9842-8818

서울대교구 새천년복음화학교 151기 1단계 개강

일시: 3/10(월) 10:00, 19(수) 19:00
수강료: 7만원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살레시오 2025년 여름신앙학교

대상: 초등부(초3~6), 중고등부(중1~고3)
신청일: 2/28(금)
신청방법: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참고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2025년 1학기 일반과정 수강생 모집

가톨릭과정(가톨릭전례꽃잎, 전례초조각,
시편 해설과 함께읽기, 산티아고 스쿨) 외
문화예술인문과정, 자격증, 전문가과정 등
홈페이지 상세 안내
(<https://lifelong.catholic.ac.kr/>)
장소: 가톨릭대 평생교육원(부천 역곡)
모집기간: ~2월 말
문의: 02-2164-6587

인천가톨릭대 미래인재평생교육원 2025년 1학기 수강생 모집

성음악아카데미(성악, 오르간, 합창지휘),
스테인드글라스, 이콘, 전례꽃 및 미술
접수: 1/20(월)~2/26(수)
수업기간: 3~6월
장소: 인천가톨릭대학교 송도국제캠퍼스
문의: 032-830-7094
<https://mirae.iccu.ac.kr>

도미니코 평신도회 회원 모집(재속회)

대상: 견진성사를 받은 만 63세 이하의 성인 남·녀
문의: 010-9050-8308 성소담당

재속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성 프란치스코 영성으로
복음적 삶을 살기 원하는 남·녀 교우
문의: 010-3012-2163

예수성심 강화-김포 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65세 이하 교우
문의: 010-5245-9300

순례 | 기타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3/28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0만원
4/8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5만원
5/6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2일] 560만원
6/3 조지아, 아르메니아 [10일] 470만원
7/4 성모 발현 성지 4개국 [12일] 560만원
문의: 02-722-8366

가톨릭 해외 성지순례

4/22, 5/13 이탈리아 일주 [11일] 415만원
5/3 체코, 폴란드, 발칸 메주그리에 [15일]
5/20 유럽 4개국 성모 3대 발현지 [12일]
5/19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3일]
6/5 세계 올드레야 로마 대회 참가단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일본 성지순례 [3박 4일]

도쿄, 오사카, 아키타, 북해도, 나가사키 120만원
문의: 010-3645-9028

라파엘 해외성지순례

4/7 다낭 성지순례 [5일] 155만원(아시아나)
4/21 특선 이탈리아 [11일] 499만원(대한항공)
4/23 프랑스 성모 성지 [12일] 545만원(아시아나)
4/28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39만원
5/9 유럽 4개국 성모 발현지 [12일] 495만원
5/12 산티아고 순례길과 포르투갈 [13일] 479만원
문의: 02-778-8565
www.clubraphae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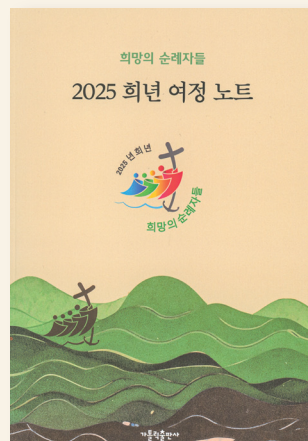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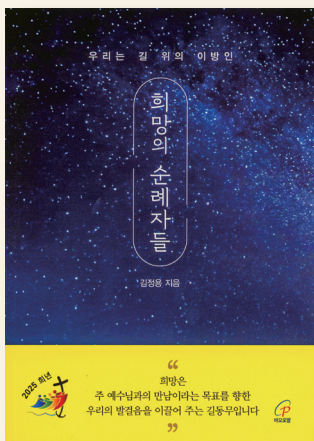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피점,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릿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문의: 041-934-7758
<https://yonaresort.modoo.at/>

희망의 순례자들

“희망은
주 예수님과 만남이라는
목표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는 길동무입니다.”

김정용 신부 지음
바오로딸 | 10,000원

**희망의 순례자들
2025 회년 여정 노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2025년 회년 메세지를
키워드로 만나다.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엮음
가톨릭출판사 | 6,000원